

의 영세불망비가 음각되어 있다.

2) 비석거리

원마에서 외선미1리 방향 100m 지점에 비석거리가 있다. 3기의 비석이 일부 훼손된 채 현존한다. 평해군수를 역임한 심능무와, 이종규, 심의완의 영세불망비이다.

3) 인(印) 바위와 옥녀(玉女)무덤

1592년(선조 25)에 평해군수가 가족을 동반하여 한양으로 상경(上京)하면서 구주령(九珠嶺)에 있는 바위 뒤에 구멍을 뚫고 원님의 직인(職印)을 숨겨 두었다 하여 인(印)바위라 하였다. 또 구주령에서 잠시 쉬던 중 원님의 딸 옥녀(玉女)가 가마 안에서 갑자기 사망(死亡)하였으므로 양지바른 곳에 안장(安葬)코자 하였으나, 시체가 가마 안에서 떨어지지 않아 현장(現場)에다 무덤을 썼는데, 이 무덤을 옥녀봉이라고 부르며 현존한다.

제21절 조금1리(操琴一里)[속명 : 하조금(下操琴)]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북골과 경계로 덕산3리 한실마을과 닿아있으며, 무더니재를 경계로 덕산1리 검월과 닿아있다. 서쪽으로는 마을 앞 도꾸재를 경계로 조금2리와, 남쪽으로는 큰미리재를 경계로 영해면 창수, 북쪽으로는 영양군 수비와 연,접해 있다. 마을은 원수곡과 금계동으로 나뉘어 있다. 금계동은 ‘옥녀산발형’이라고 인식하며 ‘옥녀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거문고를 타는 형국’으로 여긴다. ‘홍건적의 난을 피해 어린 조카를 데리고 피난을 온 고모가 쌓았다’라는 전설이 전해지는 고모산성(姑母山城) 흔적이 현존한다. 원수곡은 의성 김씨가 처음 개척했다고 전하며 ‘배형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2002년에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약 400년 전에 창녕 조씨(昌寧曹氏)가 개척할 때, 이 마을이 옥녀(玉女)가 거문고를 잡고 노래 부르는 형태라 하여 마을 이름을 조금(操琴)이라 하였다. 임진왜란 때 의병대장(義兵大將) 원수(元帥)가 의병(義兵)을 거느리고 골(谷)에 오래 주둔하였으며, 그로부터 60년 후에 의성 김씨가 이곳을 개척하면서 의병대장 원수(元帥)의 이름을 따서 원수곡(元帥谷)이라 불러오고 있다.

3. 가구 분포

총 4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경주 이씨(慶州李氏), 의성 김씨(義城金氏), 창녕 조씨(昌寧曹氏), 순흥 안씨(順興安氏), 광주 이씨(廣州李氏), 예안 이씨(禮安李氏), 선산 김씨(善山金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백암산성(白岩山城)

온정면 온정리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중소형 성곽이다. 험한 지형을 이용한 연곽식(連郭式)의 내외성(內外城)을 갖춘 산성으로, 울진과 봉화, 영양의 내륙을 비롯해 동해로의 교통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구전에 따르면 신라시대 구대림(丘大林), 황락(黃洛) 두 장군이 축조한 석성으로, 신라의 왕이 왜란을 피하여 백암산성에 잠시 머물렀고, 고려 공민왕도 난을 피해 잠시 와 있었다고 한다.

2) 석곡(石谷)

옛날부터 돌이 많은 계곡(溪谷)이라 부르는 이름이다.

3) 칠보산(七寶山)

이 산은 온정면의 덕산리와 영덕군의 병곡면, 창수면과 경계를 이루며, 조금1리의 앞산으로 산세(山勢)가 수려(秀麗)하고, 산(山)속에 일곱 가지의 보배가 있다 하여 칠보산(七寶山)이라 한다.

4) 할무산성(姑母山城)

온정면 조금1리 하조금마을에 있는 조선 중기 석축 산성이다. 고모산성에 관한 첫 기록은 『여도비지(輿圖備志)』 평해군 고성조에 ‘고모성(姑母城)’이라는 성의 이름만 확인된다. 『대동지지(大東地志)』 평해군 성지조(城池條)에도 ‘고성’이라는 성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이후 『강원도읍지』·『평해군지』·『울진읍지』 등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울진군지』 평해 고적조에 ‘조선시대 선조 30년(1597) 정유(丁酉)에 평해군수 겸 조방장(助防將)인 윤열(尹悅)이 축조한 석성(石城)으로 지금도 성지가 남아있으며, 이곳은 백수산(柏樹山)으로 유명하다’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고모산성은 조선시대 정유재란(丁酉再亂) 무렵에 축조된 것으로 학계는 판단하고 있다.